



이정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출판계 문제, 탄력적 대응할 터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998년 11월 출판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보자는 목적으로 창립된 출판인들의 모임이다. 300여 개의 단행본 출판사들이 주축을 이뤄 자본의 영세성과 유통구조 개선, 활발한 독서문화 풍토 조성 등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지 9년. 올해 초 선출된 이정원 신임 회장을 만나 새로운 계획과 한국출판인회의의 현재를 살펴봤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이정원 한국출판인회의의 신임회장은 선출 당시 “건전하고 풍족한 출판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서정가제, 유통문제, 사재기 등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출판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제 선출 3개월여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회장은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올해의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현재 도서 정가제 문제는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켜야 할 문제이죠. 지난 4월에는 책의 날 행사와 이달의 책 선정 방법, 선정위원 위촉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출판인회의 내에서도 ‘이달의 책’ 선정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언급한 ‘이달의 책’은 출판인회의 내에서도 비중 있는 사업의 하나이다. 이정원 회장은 작년과 다른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권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연간 2억여 원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저희의 이달의 책이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선정도서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도 약했었죠.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위원들도 도서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대중성 확보를 위해 기자들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출판인재 양성과 독서진흥 토대 힘써

출판인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미래출판연구소’의 설립이었다. 이 역시 현안에만 급급하게 대처하는 기존의 출판계 모습을 탈피하고 장기적인 출판 인프라를 형성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다.

“우리 출판계는 매번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에만 바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출판인회의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늘 수동적이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당장 오늘, 현재의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재정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많은 출판인들의 느끼는 문제를 허물없이 나눠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 연구를 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래출판연구소’는 가동 중이다. 이 회장은 여러 가지 제안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은 장인용 지호출판사 사장이 맡았다.

“구체적 활동을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기에 우선 가설 몇 가지를 정해서 그 가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지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미래출판연구소의 사업처럼 가설을 통해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회장은 “현안들도 간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판인회의는 가까운 시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과 출판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책자를 만들어 출판계에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유통부분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공급

률과 서점가 할인 등 출판사 병폐로 꼽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예정입니다. 공급자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유통사 측에서 문제가 크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긴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판인회의는 유통, 교육, 출판사업, 대외협력, 총무위원, 미래출판연구소 등 각 영역의 위원장(실행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위원들을 구성, 움직이고 있다.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각 분야별 반독립 체제 시스템이다.

출판인회의의 다각적인 발전모색과 활동영역 확장은 무엇보다 설립 취지와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이 회장은 염두하고 있었다. 장·단기 문제 해결도 근본적으로는 ‘과거 보다 좀더 나아진 현재’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출판계가 궁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하면 출판인력 수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겠죠. 각 출판사들이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은 일종의 사명감이 필요하지만 직원 처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회장은 현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출판계의 발전적인 자극을 위해 ‘1인 출판’도 권장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에디터란 직함을 외국처럼 전문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각에 얽매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CEO들이 출판계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하고요.”

이정원 회장 자신도 사회과학도서를 출판하는 경영인으로서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함을 밝혔다. 아직까지 국내 출판계 인력 수용이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 이상과 현재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장 뿐 아니라 출판인회의가 지향하는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상을 이루기 위해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행보를 이뤄갈 것임을 피력했다. 이는 ‘시대와 발을 맞추는 산업으로서의 출판’을 꿈꾸는 출판인회의의 자세와 의지를 보여준다. 